

구	석	기	시	대	부	터	21	세	기	오	늘	날	이			
오	기	까	지	,	인	류	의	문	명	은	어	디	까	지	발	
전	했	는	지	알	고	있	는	가	?	과	거	의	문	명	인	이
그	들	의	손	에	들	고	있	던	돌	도	끼	는	스	마	트	
폰	이	,	그	들	의	바	삐	뛰	던	다	리	는	4	개	의	
바	퀴	가	,	그	리	고	그	들	이	살	던	움	집	은		
이	제	는	아	파	트	가	되	어	구	름	을	뚫	고	우		
뚝	쑏	아	있	다	.	또	한	구	석	기	의	그	들	은		
대	책	없	이	주	위	의	자	원	을	소	모	한	끝	에		
그	들	의	집	을	떠	날	수	밖	에	없	었	다	.			

지	금	우	리	는	또	한	대	책	없	이	자	원	을				
소	모	하	고	있	다	.	상	상	해	보	라	.	마	실	물		
조	차	없	이	우	리	의	집	을	,	나	아	가	지	구			
라	는		‘	집	’	을	잃	는	상	황	을	.	오	늘	날		
의	그	들	,	즉	우	리	는	거	듭	하	여	진	화				
할	필	요	가	있	다	.	그	진	화	의	이	름	,				
‘	그	린	리	모	델	링	’	이	다	.							
조	금	의	설	تم	조	차	없	이	바	빠	살	아	가				
느	라	,	지	구	에	게	너	무	소	홀	했	던	것	은			
아	닐	까	,		‘	그	린	리	모	델	링	’	이	라	는	단	어

는	생	소	하	게	다	가	오	기	만	한	다	.	과	연		‘				
그	린		리	모	델	링	’	은		무	엇	일	까	?		우	리	나	라	
의		건	축	물	들	은		당	장		주	거	용		건	물	만		하	
더	라	도		20	23	년		기	준		전	국	에	서		50	%	을		
넘	겼	을		정	도	로		전	국	적	으	로		많	이		분	포	되	
어		있	다	.		이	러	한		노	후		건	축	물	은		단	순	
히		지	진	이	나		해	일		등	,		자	연	재	해	에		취	
약	할		뿐		아	니	라	,		우	리	나	라	,	나	아	가		전	
세	계		지	구	촌	의		온	도	를		상	승	시	키	는		주	요	
원	인	으	로		뽑	힌	다	.		건	물	의		통	풍	성	능	이		떨

어	져		여	름	에	는		내	부	가		고	온	다	습	하	게		유
지	되	고	,		겨	울	에	는		보	온	능	력	이		떨	어	져	
저	온	건	조	하	게		유	지	되	는		것	이	다	.	이	는		곧
에	어	컨	,	선	풍	기	,	보	일	러		등	등		수	많	은		전
자	제	품	의		사	용	률	을		상	승	시	키	고	,	화	석	연	료
의		소	비	를		촉	진	시	키	는		원	인	이		된	다	.	그
렇	다	면	,		그	린		리	모	델	링	'	은		이	러	한		악
조	건		속	에	서		어	떤		방	법	으	로		그		문	제	들
을		해	결	해	줄	까	?												
	첫		번	째	로	,		3	중		유	리	창	,	친	환	경		고

효	율	벽	지	같	은	소	재	를	이	용	한	패	시	브		
기	법	이	다	.	패	시	브	기	법	은	보	통	의	자	재	보
다	단	가	는	저	렴	하	면	서	도	,	통	풍	이	나	단	열
효	과	는	더	뛰	어	난	소	재	를	이	용	하	기	때		
문	에	,	디	자	인	도	잡	고	환	경	도	보	호	하	는	
'	일	석	이	조	'	의	효	과	를	누	릴	수	있	다	.	
두	번	째	로	,	땅	의	열	을	저	장	하	여	전	기	를	
생	산	하	고	태	양	열	을	이	용	하	여	전	기	를	생	
산	하	는	액	티	브	기	법	이	있	다	.	또	한	이	는	
대	규	모	건	물	이	나	,	공	공	기	관	그	리	고	개	인

가	정	에	도		쉽	게		설	치	할		수		있	어		진	입	장
벽	이		낮	고		전	력	소	비	를		줄	여		보	다		합	리
적	으	로		생	활	할		수		있	게	해	주	기		때	문	에	
우	리	에	게		큰		이	점	을		제	공	한	다	.	이	는		‘
그	린		리	모	델	링	’	에		대	한		우	리	의		고	민	을
없	애	주	기	에		충	분	하	다	.									
	부	담	가	질		필	요	없	다	.	그	저		남	은		전	구	를
고	효	율		L	E	D	로		교	체	하	는		작	은		관	심	으
로	부	터		우	리	의		환	경	보	호	는		시	작	될	것	이	니
까	.		‘	그	린		리	모	델	링	’	,	그	저		우	리	의	작

